

# 세상을 연꽃으로 장엄한 각현스님 '원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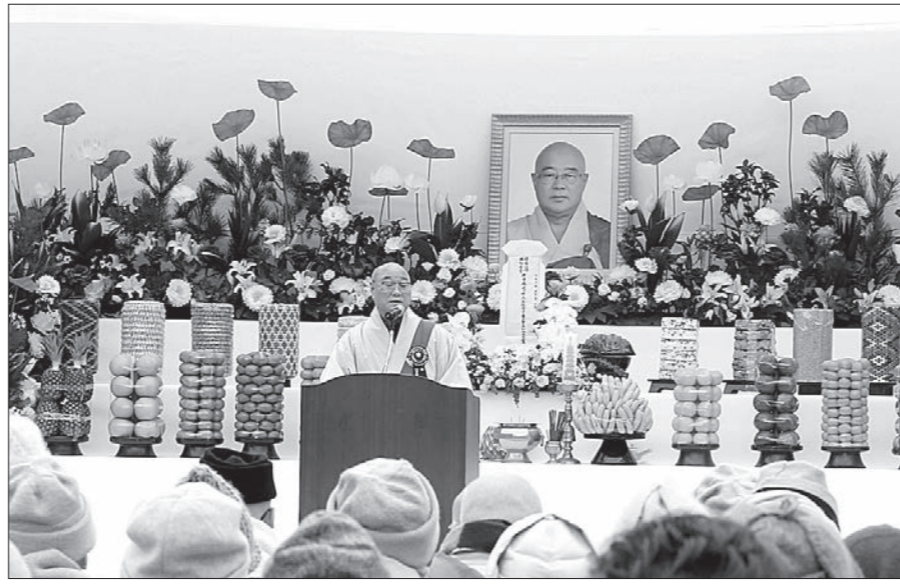
## 12월29일 법주사서 다비식 엄수

불교 사회복지의 지평을 연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스님이 지난 12월 25일 안성 파라밀병원에서 임직했다. 법랍 46세, 세수 71세. 영결식은 12월29일 출가본사인 제5교구본사 법주사로 법구가 이운된 가운데 엄수됐다.

1968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원로 의원 월탄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깨달아 열심히 중생을 교화하라'는 의미에서 각현(覺賢)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법주사 강원을 졸업하고 홍콩으로 만행을 떠났던 스님은 "홍콩에서 불교가 확고한 위치를 갖게 된 이유를 보니 모든 사찰에서 복지를 실천하고 있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사회복지가 점차 중요해 질 것"이라며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동국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의왕 청계사 주지와 홍콩 흥법원장, 제5교

구본사 법주사 부주지를 역임하고 1990년 연꽃마을 불사를 시작했다. '마을마다 연꽃마을, 마음마다 연꽃마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작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은 특효 사상에 가치를 두고 사업을 전개, 전국 22곳 지부를 둔 법인으로 성장시켜 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군포 매화종합사회복지관 등 전국 10곳의 종합사회복지관과 안성 파라밀병원을 비롯한 노인요양원 5곳, 재가노인복지시설 21곳, 어린이 집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 8곳, 경로식당 10곳과 요양병원 및 장애인 시설, 경로식당 등 17곳의 기타 시설을 운영하며 불교의 자비사상을 실천해 왔다.

특히 지난 2008년에는 의료법인 연꽃마을을 설립, 스님과 불자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안성에 파라밀요양병원을 건립했다.



지난 12월29일 제5교구본사 법주사에서 엄수된 덕산당 각현스님 영결식에서 법주사 조실 월서스님이 법어를 하고 있다. 이시영 충청지사장

파라밀요양병원은 스님과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무료로 입소할 수 있다. 각현스님은 최근에는 베트남 광남성에 한국형 교육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해 왔다. 2004년 일본 유학 생활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 청년으로부터 '베트남에 한국군을 증오하는

립을 추진해 왔다. 임직 전날인 12월 24일에는 한 지방간지가 주관한 신년특별대담에 참여해 2015년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 불교의 자비사상을 사회에 전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

말을 추진해 왔다. 임직 전날인 12월 24일에는 한 지방간지가 주관한 신년특별대담에 참여해 2015년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 불교의 자비사상을 사회에 전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

## 속초 신흥사, 연말 자비나눔대법회 성황

저소득 지원과 장학금 전달 등 1억1800만원 후원



신흥사는 저소득세대 지원과 장학금 전달 등을 통해 1억 1800만원의 자비나눔 기금을 전달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자비나눔의 장이 마련됐다. 제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우송스님)와 신흥사복지재단은 지난 12월23일 속초 마레몬호텔 대연회장에서 저소득세대 후원과 장학금 지급 등 1억1837만4700원을 지원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나눔대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2009년 6월 우송스님의 주지 취임 후 신흥사는 명절과 송년회 등 총 19회에 걸친 자비나눔 행사를 통해 총 7277세대에 9억77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해왔다.

항공권과 여비 등 총 800만원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주기 사업'도 마련했다. 자비나눔 법회는 신흥사뿐만 아니라 한화호텔&리조트 설악이 속초시노인복지관에 후원금 3688만원을, 롯데주류 치음처럼이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1500만원을 후원하는 등 속초지역 기업 및 단체들도 자비나눔문화의 확산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1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자비나눔대법회는 식전공연행사를 시작으로 1부 기념법회, 2부 저녁공양 등으로 진행됐다. 신흥사 주지 우송스님은 법어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돼야만 내 삶을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서 "저를 비롯한 신흥사와 신흥사복지재단 가족들은 이같은 마음으로 늘 지역민과 함께 하고자 부단히 전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극한 정성으로 지역민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서원했다.

속초=박인택 기자

## "스님들 활동 국민에게 감동과 신뢰 주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세월호 활동 공로자 10명에 표창

종단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227일간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자비행을 실천했던 스님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조계종은 지난 12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전경실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지속적으로 지원 활동을 펼쳐 온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본부장 법일스님 등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스님들은 △법일스님(진도사 암연암회 회장, 진도 향적사 주지) △진현스님(전 진도 쌍계사 주지) △금강스님(해남 미황사 주지) △선일스님(평묵항 법당 지킴이) △법전스님(진도 체육관 법당 지킴이) △원웅스님(평묵항 법당 지킴이) △원돈스님(시흥 대각사 주지) △지안스님(진도 체육관 지킴이) △도철스님(광화문 세월호 국민 단식 32일 동참) △항명스님(안산 쌍계사 주지)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27일간 진도 평묵항과 실내체육관에서, 안산과 광화문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본부장 법일스님(오른쪽)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모습.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위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스님들의 활동은 각계각층에 많은 감동을 주고 불교계 봉사활동에 신뢰를 주었다"고 스님들을 치하했다.

본부장 법일스님은 "전국에서 많은 스님들이 참석해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묵항과 진도군실내체육관에서 불교계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며 "활동 초기와 중기,

후기에 걸쳐 봉사활동이 정리가 되면 자원봉사 매뉴얼이 될 정도로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본부장 법일스님은 "지역 사찰과 교구본사, 종단의 협조가 잘 이뤄져서 장기간 봉사활동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불교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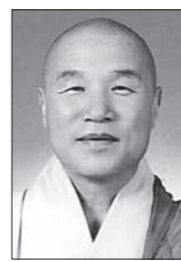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 칠장사 주지 지강스님 국무총리상 수상

탈북민 지원 공로...12월23일 시상식

안성 칠장사 주지 지강스님(사진)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공로가 인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강스님은 지난 12월2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7층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북한 이탈주민 정착시설에 대한 이불지원 등 인도애제 봉사활동의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시상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대신했다. 시상식 후 가진 간담회에서 류길재 장관은 "스님과 같은 민간인들의 도움으로 탈북민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하고 있다"며 "노고에



을 넘어 아이와 가족이 탈북하는 주민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 땅에 살아 가고 있음을 행복하게 느꼈고 탈북 주민들을 도우면서 그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도 행복했다"고 말했다. 여태동 기자

## 청계사·의왕경찰서 '청소년 선도 함께' 협약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과 권기섭 의왕경찰서장이 지난 12월22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청계사와 의왕경찰서는 청소년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폭력 가해 및 피

해 학생의 심리 치유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비행환경을 개선하고 선도, 보호활동 등 공동으로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 대불련 신임 회장에 이채은 양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53년차 중앙회장에 이채은 양(사진·건국대 글로벌 캠퍼스 2012 학번, 법명 진성인)이 당선됐다.

대불련은 지난 12월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유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단독 임후보한 이채은 양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채은 회장은 건국대(글로벌캠퍼스) 불교학생회 회장과 대불련 중앙집행위원회 기획차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건국대 불교학생회 회장 소년 비행환경을 개선하고 선도, 보호활동 등 공동으로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대불련 회장으로서 보다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고민을 털어주고 함께 좋은 것을 배우고 서로의 꿈을 이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불련은 정기총회를 마친 직후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국제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중앙회장이 취임식을 진행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주)덕성이 책임집니다!

# DM, 정기간행물

(주)덕성은 DM, 정기간행물, 판촉물 등의 기획, 발송작업은 물론 서울 및 수도권지역, 부산 등 광역시에 직배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 안전한 직배서비스



미래를 여는 (주)덕성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4-9 덕성B/D 3층  
TEL : (02)2615-0183(대)  
FAX : (02)2689-3139  
www.duksungdm.co.kr

미래를 여는 (주)덕성C&B

직배사업부 :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직배서비스 운영  
TEL : (02)2615-3296(대)



고객 가치 극대화

경쟁력 강화

이익 극대화